

주요용어 : 성행태, 성경험, 십대 여학생

##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장순복\* · 김소야자\* · 한인영\*\* · 박영주\*\*\* · 강현철\*\*\*\* · 이선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경험 증가로 인한 미혼모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시기의 성경험은 단순히 성경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흡연, 음주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청소년 범죄 등과 중복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나아가 청소년의 마음과 몸의 전반적 건강은 곧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아름다운 우리의 성’과 같은 성 관련 TV 방송 프로그램이 반영하듯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증가, 대한가족협회의 ‘자녀 성교육 부모교실’ 등과 같은 각 청소년 유관단체에서의 다양한 성교육 및 성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 및 ‘성과 행복’(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중·고등학교용 성교육 교과서 내용의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 자료구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모색은 이 시기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 되어나갈 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어서 청소년

성 문제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 성(sexuality)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들은 아우성, 성폭력 상담소, YMCA 및 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같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성 상담을 의뢰한 대상자에 기초하여 일반 청소년의 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연구들이거나, 표본 대상자 수가 크더라도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도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Lee 등, 1998).

그러나 비교적 표본의 수가 대단위이고 전국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는 1994년 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16개월 간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시 및 광역시의 중·고등학생 11,433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십대 여성의 성 실태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는 몇 개의 연구로 나누어 보고된 바 있다(Ku 등, 1996; Park 등, 1998). 이 프로젝트에서 보고된 십대 여성의 성 실태에 의하면 대상자 11,433명중 성 경험자는 5.2%(574명)이었으며, 성교 대상자는 이성친구 또는 연인이 88.5%, 친척 등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에 의한 성교가 6.3%이었다. 임신 경험자는 0.72%(82명), 낙태 경험자는 0.43%(50명), 출산 경험자는 1.2%(14명)이었으며, 낙태 경험자 중 53.9%는 낙태를 2회 이상하였고, 38.1%는 임신 4개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가정간호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호서대학교 자연과학부 전임강사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조교

투고일 2001년 8월 3일 심사회의일 2001년 8월 12일 심사완료일 2001년 10월 9일

월 이후 낙태를 하였으며, 23.4%는 낙태 후 합병증을 경험하였고, 36.1%는 낙태 후 다시 성교를 가졌으며 이중 77.8%는 낙태 후 일주일 이내에 성교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는 조사 시기가 이미 5년 전이고, 또한 이 연구의 주 내용은 청소년의 성 관련 경험 실태만을 조사하고 도시지역에 국한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성 경험과 같은 성 문제 발생의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동안의 십대 여성들의 성행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성 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성 경험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십대 여성들의 성 관련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문제

- 첫째, 십대 여학생의 성 행태는 어떤 양상인가?
- 둘째, 십대 여학생의 성 경험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3. 용어정의

- 1) 십대 여학생: 한국에 거주하는 13 - 19세의 여자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의미한다.
- 2) 성행태: 이성교제 양상, 성 관련 반응, 성교, 성병, 임신, 피임, 낙태경험을 총칭한다.
- 3) 성경험: 성교 경험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 양상을 파악하고 성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우편 설문지법에 의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모집단은 한국의 4,684개 중·고등학교의 십대 여학생(13-19세) 1,988,902명이며, 근접 모집단으로는 이

<Table 1> Sampling method school number

	Middle school (9th x100명)	High school(10th,11th, x100명)			High school Sum	Total		
		Humanity science	Vocational					
Urban	Seoul	5	5	4	9	14		
	Taejeon	4	4	5	9	13		
	Taegu	4	5	4	9	13		
	Incheon	5	4	5	9	14		
	Pusan	5	5	4	9	14		
	Kwangju	5	4	5	9	14		
	Woolsan	4	5	4	9	13		
	Urban Sum	32	32	31	63	95		
	Middle school (9th x100명)	10th grade(x50명)		11th grade(x50명)		High school Sum	Total	
		Humanity science	Vocational	Humanity science	Vocational			
Rural	Kyungi	3	3	4	3	4	14	17
	Kangwon	4	4	3	4	3	14	18
	Chungbuk	3	3	4	3	4	14	17
	Chungnam	4	4	3	4	3	14	18
	Junbuk	3	3	4	3	4	14	17
	Junnam	4	4	4	4	4	16	20
	Kyungbuk	4	4	3	4	3	14	18
	Kyungnam	3	3	4	3	4	14	17
	Cheju	3	4	3	3	4	14	17
	Rural Sum	31	32	32	31	33	128	159
Total	63	96		95			254	

중 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다. 표적 모집단으로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중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19,000명의 여학생을 표본으로 한다.

1) 연구대상 선정 방법

연구대상 선정은 전국 2,741개의 중학교로부터 63개교와, 1,943개의 남녀공학과 여학교로부터 191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총 254개의 학교가 대상 선정 학교가 되었다. 전체 중·고등학교의 십대 여학생 1,988,902 명으로부터 19,000명을 층화표집 하였다<Table 1>. 층화표집 방법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학년에 따라 같은 비율로 나누고, 도시(서울, 대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와 농촌(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문과 실업을 같은 비율을 적용하였다. 농촌지역의 학교인 경우는 주소지가 읍, 면 단위 소재 학교로 선정하여 7대 도시 이외의 중, 소도시 단위 소재 학교는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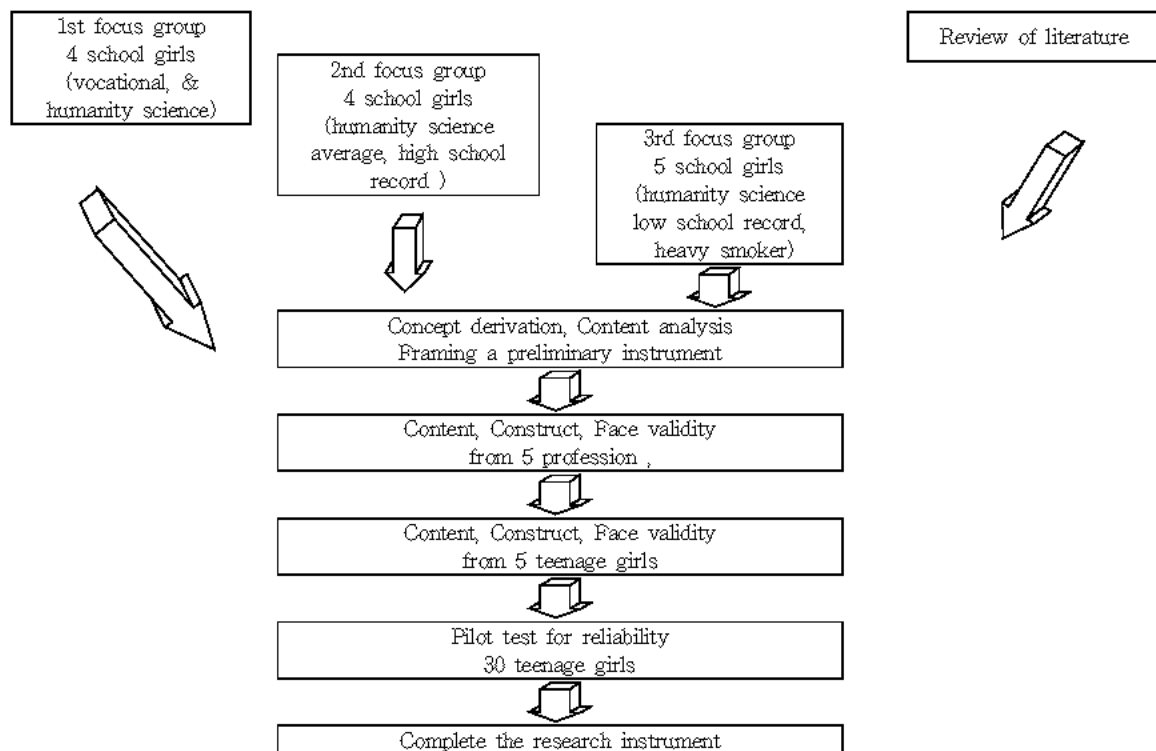
중학교 십대 여학생은 총 63개 학교(농촌:31개 학

교, 도시:32개 학교)로 한 학교 당 100명 씩 중학교 3학년의 십대 여학생 총 6,300명 선정되었고, 고등학교 십대 여학생은 총 191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이중 인문 학교 95개 학교, 실업계 학교 96개 학교로서 도시소재 63개 학교, 농촌소재 128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농촌에 소재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학생수가 적어서 인문, 실업계별 십대 여학생 100명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므로 50명이 확보되는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수를 2배 더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보고 식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총 1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일반적 사항 6문항, 이성교제에 관한 45문항, 비행관련 8문항, 십대 성경험 관련 60문항, 피임관련 22문항, 임신관련 8문항, 낙태관련 22문항 등 19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1>.

4. 자료수집



<Fig. 1> The process of instrument development

자료수집은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우편을 이용한 자가보고법으로 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자료수집을 위한 공문을 보내어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교사에게 서편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회수방법, 비밀유지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리고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에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상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무기명으로 하여 비밀보장을 할 것을 약속한 후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자료수집을 주관하는 담당교사가 절대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보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불펜을 선물하였다. 설문지 완성 소요 예상 시간은 평균 10 - 15분 정도였다. 총 19,000부를 배포하여 12,81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67.4%이었고, 이중 불완전한 설문지 84부를 제외하고 총 12,733부가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행경험, 이성교제 경험, 성적 접촉 경험, 임신경험, 낙태 경험, 성병경험, 출산 경험 관련 요인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 십대 여학생군 중 성경험에 따른 비행경험, 이성교제 경험, 등의 차이 검정은  $\chi^2$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십대 여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학년별 분포는 중학교 3학년이 32.4%, 고등학교 1학년 27.4%, 고등학교 2학년 40.3%이었다. 계열별 분포는 인문계 41.1%, 실업계 26.4%이며, 학교별로는 남녀공학 재학생이 42.9%, 여학교 재학생이 57.1%로 나타났다. 연령별분포는 13 - 15세가 36.7%, 16 - 18세가 59.5%, 19 - 20세가 3.8%로 16 - 18세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별 분포는 6대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인천,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이 40.6%,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 59.4%이었다. 거주형태별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가 94.3%, '가족이외 거주' 5.7%이었으며, '가족이외 거주' 학생 중 기숙사에 거주

하는 학생은 2.5%이었다.

2.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 실태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율은 전체 12,733명 중 48.1%(6,130명), 성경험율은 4.5%(578명), 임신 경험율은 0.5%(66명), 낙태 경험율은 0.4%(43명), 성병 경험율은 0.8%(13명), 피임 경험율은 3.4%(431명)이었다<Table 2>.

<Table 2> Experiences of sexual behavior of teenage girls N=12,733

Content of experience	Category	n(%)
Dating	Yes	6,130 (48.1)
	No	6,520 (51.5)
	No answer	83
Coitus	Yes	578 ( 4.5)
	No	11,254 (88.4)
	No answer	901
Pregnancy	Yes	66 ( 0.5)
	No	12,311 (99.5)
	No answer	356
Artificial abortion	Yes	43 ( 0.4)
	No	11,330 (99.6)
	No answer	1360
Sexual transmitted disease	Yes	13 ( 0.8)
	No	1,533 (99.2)
	No answer	11,187
Use of contraceptives	Yes	431 ( 3.4)
	No	12,302 (99.6)
	No answer	0

3.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을 차이 검정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은 학년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2.9%(110명), 고등학생의 경우 5.9%(461명)로 고등학생의 성경험율이 높았다(p<0.000).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는 2.8%(138명), 실업계 10.5% (319명)로 실업계가 3.7배 높은 성경험율을 보였다(p<0.000). 주간학교와 야간학교별로 살펴보면 주간학교인 경우 5.7%(441명), 야간학교는 13.4%(16명)로 야간학교가 2.3배 성경험율이 높았다(p<0.000). 학교 형태별로 보면 남녀공학이 6.0%(298명), 여학교가 4.1%(276명)로 남녀공학의 성경험율이 유의하게 높았

<Table 3> Coitus rat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1,254

Characteristics		Coitus	Yes n(%)	No n(%)	$\chi^2$	p
Grade	Middle school		110 ( 2.9)	3673 (97.1)	47.063	.000
	High school		461 ( 5.9)	7461 (94.1)		
	No answer		7	120		
Track	Humanity science		138 ( 2.8)	4706 (97.2)	201.529	.000
	Vocational		319 (10.5)	2707 (89.5)		
	No answer		121	3841		
Day/night	Day school		441 ( 5.7)	7310 (94.3)	12.889	.000
	Night school		16 (13.4)	103 (86.6)		
	No answer		121	3841		
Education system	Coeducation		298 ( 6.0)	4693 (94.0)	21.339	.000
	Girl school		276 ( 4.1)	6444 (95.9)		
	No answer		4	117		
Boarding	With family		529 ( 4.8)	10561 (95.2)	3.772	.52
	Without family		41 ( 6.5)	592 (93.5)		
	No answer		8	101		
Resident area	Urban		238 ( 4.6)	4916 (95.4)	0.249	.618
	Rural		278 ( 4.8)	5489 (95.2)		
	No answer		62	849		

다(p<0.000). 가족 형태별과 거주지별 성경험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성 경험 여부에 따른 이성교제 양상

이성교제 하는 집단 여학생의 성경험율은 8.9% (506명)로 집단 여학생의 성경험율인 4.5%에 비하여 약 두 배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00). 이성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성경험을 한 1.1%(69명)의 경우에는 자료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폭력이나, 친척과의 성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경험에 따른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 나이로는 성

경험군이 유의하게 0.36세 높았고(p<0.000), 평균적으로 남자를 사귄 수 역시 약 3.7명 정도 많았으며 데이트 시간 역시 평균 2.8시간 더 길었다(p<0.000).

성경험에 따른 이성과의 데이트 방식으로는 성경험군이 '노래방 간다'가 60.7%(351명), '비디오방에 간다'가 18.5%(107명)로 성경험하지 않은 군의 '노래방 간다' 30.5%(3436명), '비디오 방 간다' 3.3%(366명)에 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또한 성경험군의 경우 '술 먹는다'가 54.8%(317명)로 성교하지 않는 군의 13.5%(1,515명)에 비하여 4배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p<0.000), '스킨십 한다'는 성경험군이 56.6% (327명)으로 성경

<Table 4> Date experience and coitus

coitus		Yes n(%)	No n(%)	$\chi^2$	p
Date experience n(%)	Yes	506 ( 8.9)	5198 (91.1)	377.263	.000
	No	69 ( 1.1)	5983 (98.9)		
	No answer	3	73		
Mean age(yrs)		16.27±0.95	15.91±1.04	-8.920	.000
No. of boyfriends(n)		5.59±3.13	1.85±2.47	-27.097	.000
Date hour(hr)		4.86±2.69	2.04±2.33	-24.095	.000
Type of dating n(%)	Go to singing room	351 (60.7)	3436 (30.5)	230.330	.000
	Drinking	317 (54.8)	1515 (13.5)	719.447	.000
	Go to video room	107 (18.5)	336 ( 3.0)	367.749	.000
	Riding motorcycle	76 (13.1)	366 ( 3.3)	149.734	.000
	Skinship	327 (56.6)	1339 (11.9)	907.035	.000

험하지 않는 군의 11.9%(1339명)에 비하여 데이트 동안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그 외에 '오토바이 탄다' 역시 성경험 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0).

5. 성경험 여부에 따른 문제 행동 양상

일반적 비행 중에서는 성경험군 578명 중 음주 경험은 89.2%(514명), 포르노 경험은 65.3%(371명), 본드흡입 경험은 2.7%(15명), 가솔경험은 43.7%(247명), 흡연 경험은 14.5%(81명), 사이버 섹스인 경우는 70.8%(405명), 콘섹스인 경우는 12.9%(72명)로 성경험군이 성경험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하게 비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그 중 특히 사이버 섹스 경험은 성경험군이 70.8%, 성경험하지 않은 군이 16.7%로 4.2배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00). 또한 성경험군의 26.1%(146명)는 성경험하지 않는 군의 13.2%(1444명)보다 왕따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Table 5>.

6. 성경험 여부에 따른 성 관련 반응.

성경험 여부에 따른 성 관련 반응을 알기 위하여 성적 느낌, 성교 이유, 성교 관련 이득과 손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교에 대한 느낌은 성경험군이 '흥분된다'가 6.6%(38명), '자연스럽다'가 37.9%(219명), '아름답다'가 8.7%(62명)로 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성경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성의 쾌락에 민감해지는 반면 '죄책감이 든다'가 2.8%(16명)로 성경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죄의식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

성경험하는 이유로는 성경험군의 경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가 46.9%(271명)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로 '거절하면 기분 나빠할까봐'가 32.2%(186명)이었으나, 성경험하지 않는 군인 경우 성교를 하게 되는 이유로 상황적으로는 '둘이만 있다'가 성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38.3%, 4310명). 성교를 하게 되는 이유로 경험하지 않는 군의 경우는 '둘이서 함께'있으면 성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교를 한 경험이 있는 군인 경우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혹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 접촉에 관하여 적절히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험에 이르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성경험을 통하여 얻는 이득으로는 성경험을 경험하지 않은 군인 경우 '이득이 없다'가 75.7%(8519명)이, 성경험군 59.2%(342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친구를 꼭 잡을 수 있었다'가 성경험군이 20.6%(119명), 성경험하지 않는 군의 4.5%(501명)에 비하여 높아서 성경험을 통하여 남자친구와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성경험 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경험을 통한 손해로는 '임신걱정을 하게 되었다'가 성경험 군이 유의하게 높아서 실제로 성경험을 경험한 군의 73.7%(426명)가 임신걱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험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역시 성경험을 경험한 군이 성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28.7%(166명)로 성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군의 11.5%(1292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성경험을 하고 나면 남자와의 관계에서 성경험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인 12,733명의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 중에 이성 교제율은 48.1%(6,130명), 성경험율은 4.5%(578명), 임신 경험율은 0.5%(66명), 낙태 경험율은 0.4%(43명), 성병 경험율은 0.8%(13명), 피임 경험율은 3.4%(431명)이었다. 또한 성경험자들의 73.7%(426명)가 임신걱정을 하고 결국 성경험한 군의

<Table 5> Sexual experience and delinquent behavior

Content	Coitus		s <sup>2</sup>	p	
	Yes n(%)	No n(%)			
Delinquency	Drinking	514 (89.2)	6842 (61.4)	181.759	.000
	Pornography	371 (65.3)	3161 (28.6)	3444.555	.000
	Inhalation	15 ( 2.7)	35 ( 0.3)	69.904	.000
	Leave home	247 (43.4)	710 ( 6.4)	979.990	.000
	Smoking	81 (14.5)	285 ( 2.6)	248.346	.000
	Cyber sex	405 (70.8)	1844 (16.7)	1021.692	.000
	Phone sex	72 (12.9)	202 ( 1.8)	282.028	.000
Wangtta	146 (26.1)	1444 (13.2)	74.373	.000	

<Table 6> Coitus experience and sexual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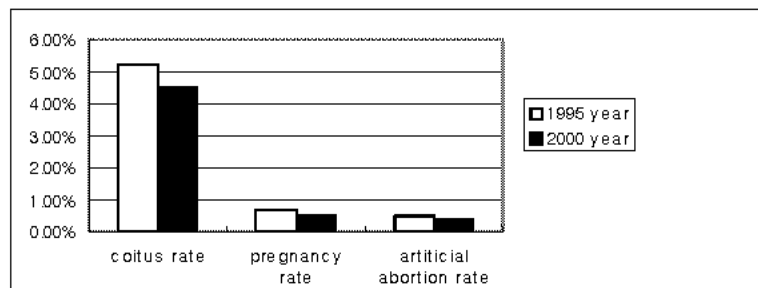
Coitus		Yes n(%)	No n(%)	$\chi^2$	p
Sexual response	Excitement	38 ( 6.6)	347 ( 3.1)	21.284	.000
	Guilty	16 ( 2.8)	59 ( 0.5)	43.949	.000
	Natural feeling	219 (37.9)	2,512 (22.3)	75.053	.000
	beautiful feeling	62 ( 8.7)	650 ( 5.8)	23.828	.000
Reason of having coitus	Afraid of broken relationship	95 (16.4)	1,122 (10.0)	24.910	.000
	Afraid of bad response with reject	186 (32.2)	2,468 (21.9)	33.196	.000
	Self respected feeling	27 (47)	137 ( 1.2)	47.982	.000
	Feeling of belong to peer group	40 (69)	400 ( 3.6)	17.398	.000
	To confirm love	271 (46.9)	2,645 (23.5)	161.859	.000
	To feel sexual pleasure	143 (24.7)	2,122 (18.9)	12.031	.000
	Accidental occurrence(isolated)	363 (62.8)	4,310 (38.3)	138.154	.000
Benefit on coitus	More intimate with boyfriends	119 (20.6)	501 ( 4.5)	85.254	.000
	Satisfy curiosity	97 (16.8)	1,302 (11.0)	14.329	.000
	No gain	342 (59.2)	8,519 (75.7)	79.863	.000
Loss on coitus	Worry about pregnancy	426 (73.7)	6,726 (59.8)	44.664	.000
	Unable to refuse of sexual contacts	166 (28.7)	1,292 (11.5)	151.228	.000

11.4%가 임신에 이르고, 임신한 군의 65.1%가 인공 유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1995년 십대 여성의 성 실패 연구의(Ku 등, 1996; Park 등, 1998) 십대 여성의 성경험을 5.2%(574명), 임신 경험을 0.72%(82명), 낙태 경험을 0.43%(50명)보다 조금씩 낮은 결과이다. 1995년 Park(1998) 자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험을, 임신율 및 키스율이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의 나라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십대 성경험율, 임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학교를 통한 자가보고법이 응답자의 치우친 응답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같은 조건하에서 Ku(1995)의 연구 대상이 우리나라 7개 대도시에 국한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읍·면 단위의 중·고교를 포함시켰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촌지역의 성경험율이 4.8%로 다소 높게 나온 것을 통합하여 제시한 결과로써 연구설계상의 오류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의 임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1998년도 구상애의 아우성 운동과 여성 민우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의 기관에서의 꾸준한 성교육이 작으나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성교육 교과서 배포, CD-ROM 개발 및 성교육 전담교사 배치 등의 정부차원의 노력이 효과의 하나가 아닌가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 십대 임신율인 0.5%는 미국의 십대 임신율 6%, 영국 1.8%, 네델란드 1.5%, 일본 1.6%, 중국 1.8%, 인도 3.0% 보다 낮은 수치이다(Mackey, 2000). 그러나 이러한 임신율을 평면적인 수치로 비교



<Fig. 2> Statistics of coitus, pregnancy, artificial abortion rate in 1995 and 2002

하고 우리나라가 십대 성문제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임신율은 낮아지더라도 미혼모의 수는 더욱 저 연령화 되고 있고 절대적인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Han, 1998). 또한 성교하는 상황을 보면 성교하는 이유로 '거절하면 기분 나빠할까봐'가 32.2%(186명)로 성교 상황이 비자발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험은 조기에 경험할수록 성 건강 수준은 낮아지고(Mackey, 2000), 그들의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없고(Yoon, 1995),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Lee S.K, 2001), 그들은 원치 않는 성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지므로(Chang 등, 2000) 인간의 성 생식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자들은 임신이나 성병 등의 생물학적인 문제만을 예방하는데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성경험을 늦게 경험하도록 돕는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기 성교에 이르게 되는 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검정하였다. 이성교제 하는 군이 안 하는 군에 비하여 성경험 가능성이 두 배 높았고, 데이트 양상으로 노래방, 비디오 방 등 밀폐 공간에서 데이트하는 군, 음주, 본드흡입 등과 같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약물을 즐기는 군, 다양한 방법의 때제를 통하여 성적 자극에 노출이 많이 되는 스킨십, 포르노, 사이버 섹스, 폰섹스를 즐기는 군과 가솔, 흡연등 청소년 비행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군이 위험군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 특성상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하는 행동(Chang 등, 2000)으로서 성경험 역시 자기통제력이 행사되어야 하는 유사한 행동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험군이 성교에 대해 흥분되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p < 0.000$ )은 일단 한번이라도 성경험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감각적 자극에 뒤따르게 되어 감정적 민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같이 감정적 민감성이 증가하면 성교상황에서 통제력이 더욱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험군이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따른 죄책감 역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높게 나오는데 이것은 성교하는 십대 여학생들의 감정과 이성간의 갈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또한 성경험 동기를 살펴보면 '거절하면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가 32.2%로 이들의 관계 중심적인 발상으로서의 성교 경향 역시 자기중심적이지 못하고 자기통제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십대 비행에 대한 예방대책에서와 같이 십대 성교에 관해서도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 이는 십대여학생의 성경험 지연을 위한 교육 안으로서 Lee, S. K.(2001)는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 나이부터 여성에게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성교육과 여학생이 경험한 성 접촉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성교육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비행 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효를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접근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십대의 감정적 욕구에 의하여 계획적이지 못하고 순간적인 상황의 성교(Park, 1998)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성교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성교 위험요인으로 규명된 비행들을 자제하거나 상황을 기피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성경험군이 성경험을 통한 이익으로 '남자친구를 꼭 잡을 수 있었다'고 20.6%(119명)가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조사당시에 사실일 수도 있으나 십대들의 이성교제 기간이 몇 달을 갈 수 없고 후속적인 임신으로 인한 관제는 더욱 예측할 수 없으며(Chang 등, 2000; Lee 등, 1998) 사실상 남학생의 경우 성 생리적 특성상 감각적 자극에 의한 반사적인 수준에서 성충동을 느끼어 통제력을 잃고 성교와 구애를 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 없이도 물리적 폭력과 협박에 의해서도 성교할 수 있기 때문에(Papla, 1977) 성경험을 인간관계 유지수단으로 해석하는 십대여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인지하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험군은 성경험을 통한 손해로서 73.7%(426명)가 임신걱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험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가 28.7%(166명)로 성경험을 경험하지 않은 군의 11.5%(1292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험을 하고 나면 남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성 접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해 보면 십대들의 성교는 감각적 자극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렇게 경험된 성적 욕구는 예기된 반복적 충족욕구에 의하여 이성적 판단보다는 상황이나 감각적 욕구에 의해서 피하지 못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교육 현장에서는 성 생리 심리, 피임, 성병관련 지식위주의 성교육을 함으로서(Kim, 1996) 교육의 효과가 인지적 수준에 머물고 그들의 문제 대응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Bae, 1999). 그러므로 성교육의 목적이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획득에 둔다면 성교 관련 상황에 자신의 통제력을 높이는 훈



련과 더불어 위에서 밝혀진 고 위험 군에 대한 차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규명된 일반적 특성 중에서 실업계, 여고생, 야간학교, 남녀공학에 해당하는 대상자나 음주, 흡연, 본드 흡입, 가출, 포르노 시청, 사이버 섹스, 폰 섹스 등의 성경험 관련 위험요인을 갖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발견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인 12,733명의 십대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32.4%, 고등학교 1학년 27.4%, 고등학교 2학년 40.3%이었고, 인문계 41.1%, 실업계 26.4%이며, 남녀공학 재학생이 42.9%, 여학교 재학생이 57.1%이었으며, 연령은 13 - 15세가 36.7%, 16 - 18세가 59.5%, 19 - 20세가 3.8%로 16 - 18세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6대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인천,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이 40.6%이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 59.4%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94.3%, 가족이외의 거주 5.7%이었는데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 법으로 2000년 10월-11월까지 자료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율은 전체 12,733명 중 48.1%(6130명), 성경험율은 45%(578명), 임신 경험율은 0.5%(66명), 낙태 경험율은 0.4% (43명), 성병 경험율은 0.8%(13명), 피임 경험율은 3.4%(431명)이었다.
2. 십대 여학생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 접촉 실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주간학교보다는 야간학교가, 여학교보다는 남녀공학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 ).
3. 이성교제 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경험율은 8.9% (506명)이었고, 이들은 비디오 방(18.5%), 노래방(60.7%)등 밀폐된 공간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음주(54.8%), 스킨십(56.6%)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비행 중에서는 성경험한 578명 중 음주 경험은 89.2%(514명), 포르노 경험은 65.3%(371명), 본드흡입 경험은 2.7%(15명), 가출경험은 43.7%(247명), 흡연 경험은 14.5%(81명), 사이버 섹스인 경우는 70.8%(405명), 폰섹스인 경우는 12.9%(72명)로 성경험군이 성경험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하게 비행과의 중복성을 보였다. 그 외에 성경험군의 26.1%(146명)가 왕따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에 대한 반응 중에 성적 느낌으로 성경험군이 '흥분된다'가 6.6%(38명), '자연스럽다'가 37.9% (219명), '아름답다'가 8.7%(62명)로 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성경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성의 쾌락 등에 민감해 지는 반면 '죄책감이 든다'가 2.8%(16명)로 성경험하지 않는 군에 비하여 죄의식도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 ). 성교하는 이유의 우선순위는 성경험군의 경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가 46.9%(271명), '거절하면 기분 나빠할까봐'(32.2%)였다.

성경험을 통하여 얻는 이득으로는 '남자친구를 꼭 잡을 수 있었다'(20.6%)로 성경험을 통하여 남자친구와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성경험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자들의 73.7%(426명)가 성경험을 통하여 임신을 걱정하게 되고, 28.7%가 '성경험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십대여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성교육 전에 그들의 특성을 사정하여 이성교제 여부, 비행여부, 인문실업, 남녀공학, 주야간, 학년 등을 파악한 후에 집단의 특성별 교육요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에 따른 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한국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위하여 다단계 집락 표출하였으므로 완전 무작위 표출에 비하여 대표성의 제한될 수 있다.
2.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솔직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되었으나, 학교 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무응답율이 높은 문항에 관하여는 십대 여학생들의 응답이 학교 망 이외에서 수집된 경우와는 응답상의 솔직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 1) 조기 성교위험 요인 연구를 한다.
- 2) 성교 후 적응양상 연구를 한다.
- 3) 성 접촉 과정유형에 관한 연구를 한다.
- 4) 십대 여학생뿐만 아니라 미혼모, 취업군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어져 한다.

## Reference

- Bae, Y. H. (1999). *Content Analysis of*

- Textbook for Sex education, Need for Sex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 Chang, S. B., Kim, S. Y. J., Han, I. Y., Park, Y. J. (2000). *Pregnancy Rate, Prevention Strategy for Teenage Girls.* Seoul : The commission of youth protection.
- Han I. Y. (1998). Statistics of unwed mother and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rd Seminar.*
- Kim M. J. (1997). *Content analysis of sex education: materials for primary, Secondary school*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u, B. S., Park, Y. J., Kim, T., Shin, J. C., Lee, C, Moon, J., & Oh, M. (1996). Sexuality of Adolescent. *Journal of Korea OB & GYN Academy, 39(6), 1007-1016.*
- Lee, S. K. (2001).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Y. J., Kim, S. R., Song, E. I., Seo, J. A., Oh, Y. K. (1998). *Sex related Experience of Permissiveness for premarital coitus.* Seoul : Research Institute for sexual health.
- Makey, J. (2000). *The Penguin Atlas of Human Sexual Behavior.* Penguin Reference, 93-103
- Paplau, L., Rubin, Z., & Hill, C. (1997). Sexual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 33, 86-109.*
- Park, M. I. (1998). Issues and prevention for unwed pregnancy.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rd Seminar.*
- Park, Y. J., Ku, B. S., Kim, T., Shin, J. C., Lee, C, Moon, J., & Oh, M. J. (1998). Pregnancy, Abortion and Delivery Rates for Korean Teenagers, *J Korean Acad Nurs, 28(3), 573-582.*

Yoon, K. H. (1998). *Sexual culture, sexual psychology.* Seoul : Hakjisa.

- Abstract -

###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Chang, Soon-Bok\* · Kim, Soyaja\*  
Han, In-Young\*\* · Park, Young-Ju\*\*\*  
Kang, Hyun-Cheol\*\*\*\* · Lee, Sun-K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ate of pregnancy, abortion, delivery and contraceptive u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factors and the early coitus among Korean teenager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733 teenagers age 13-19 years in 7 major cities and 9 province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2 Oct., to 28 Oct., 2000 and analyzed by using SPSS 10.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showed pregnancy rate 45%, delivery rate 0.5%, abortion rate 0.4%. Adolescent girls who experienced coitus relatively went to vocational school, coeducation school, night school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 $p=0.000$ ).

Adolescent girls who experienced coitus tend to go to video room (18.5%), go the singing room (60.7%), the bar (54.8%), petting with the partner during the dates. There were overlapping juvenile delinquencies such as drinking (89.2%), pornography (65.3%), bond inhalation (2.7%), leaving homes (43.7%), smoking (14.5%), cyber sex (70.8%), phone sex (12.9%). Adolescent girls who experienced

---

\*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Home Health Care  
\*\* Korea University  
\*\*\* Ewha Womens University  
\*\*\*\* Hoseo University

coitus were more suffering from Wangtta (26.1%) than who had not.

The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attitudes toward coitus; such as feeling of excitement (6.6%), nature (37.9%), beauty (8.7%). On the other hand, they had more guilty (2.8%) than the inexperienced ( $p=0.000$ ).

The main factors relating to early coitus were 'to confirm love' (46.9%), 'afraid of rejection' (32.2%). They think the benefits of coitus were 'more intimacy with boyfriends'

(20.6%), 'satisfaction of curiosity' (16.8%). The losses on coitus were 'worry about pregnancy' (73.7%) and 'unability to refuse sexual contacts' (28.7%)

Conclus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plan different sex education program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cy behaviors of teenage girls in Korea.

Key words : Teenager, Sexual behavior, Coitus